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7. 12.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 장 : 허 태 응  
사무관 : 서 정 아  
전 화 : 02-500-2453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음(9P)

이 자료는 2010년 7월 13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식품 R&D, 이제 가치평가와 거래를 농식품부가 주도한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으로 최초 지정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촉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 분야 최초의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을 지난 7월 5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기술거래기관은 사업화를 위해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간 기술 거래를 추진, 기술평가기관은 기술시장의 흐름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적 기관으로 지금까지는 농림수산식품 기술분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없었다.
- 이에 농림수산식품 분야 최초의 기술거래기관과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타 분야에 비해 열악했던 기술거래·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또한, 타분야와 동등하게 준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지식경제부가 공고한 절차에 따라 지정신청, 자문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자문을 의뢰하였고, 자문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음에 따라 기술거래기관과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기술력 평가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마련 중이며, 기술평가기관으로서 실용화재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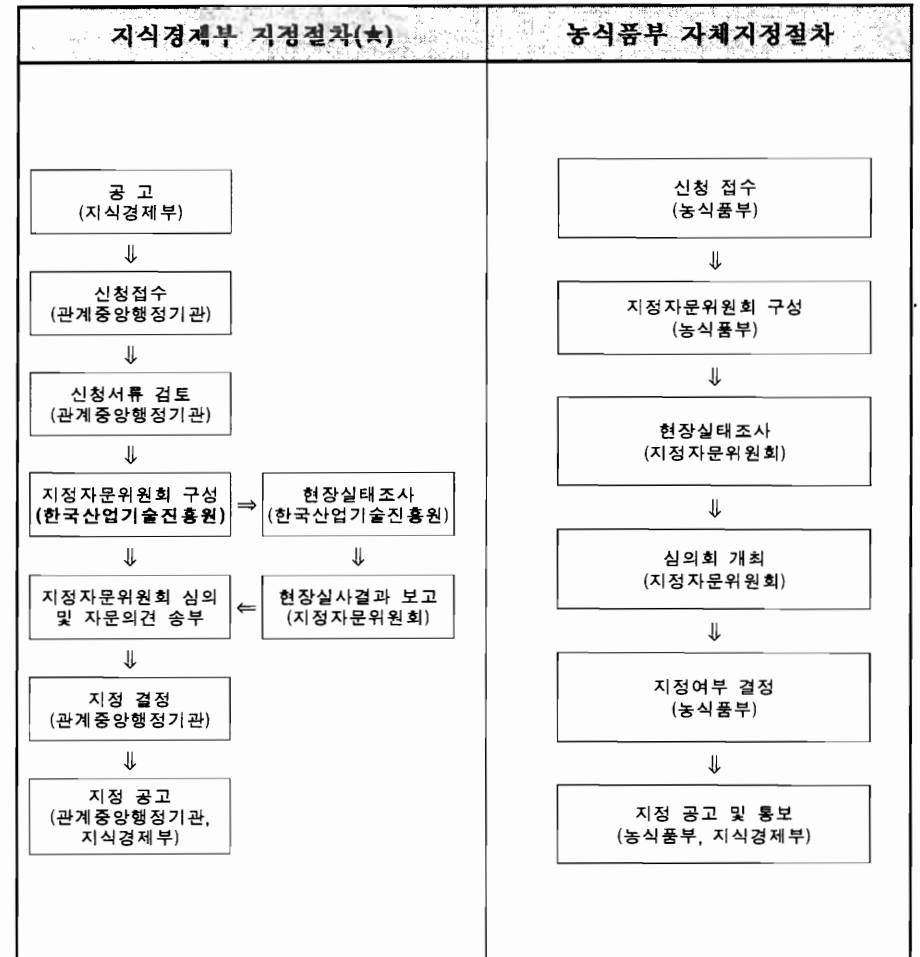
【붙임1】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 현황('10. 7. 5. 기준)

구분	기술거래 및 기술평가 동시 지정기관
공공 기관 (9)	기술보증기금,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구분	기술거래기관
공공 기관 (12)	기술보증기금,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테크노파크 (14)	(재)경기테크노파크,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재)경남테크노파크, (재)경북테크노파크, (재)광주테크노파크, (재)대구테크노파크, (재)대전테크노파크, (재)부산테크노파크, (재)송도테크노파크, (재)충남테크노파크, (재)포항테크노파크, (재)충북테크노파크, (재)전남테크노파크, (재)울산테크노파크
민간 거래기관 (36)	(주)기술과가치, (주)날리지웍스, (주)델타텍코리아, 도원닷컴(주), (주)리온아이피엘, (주)마크프로, (주)비아글로벌, (주)아이피씨엔비, (주)원니스, (주)웰처기술, (주)웍스, (주)유라스텍, (주)은진컨설팅, (주)이디리서치, (주)이지팩스, (주)지케이티엠, (주)테크리진, (주)테크란, (주)피앤아이비, (주)피에스엔비, 트리움플러스(주), 유미 특허법인,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무한, 특허법인 세신, 특허법인 엘엔케이, 특허법인 태평양, (주)특허와사업, (사)한국기업평가원,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인포클루, 특허법인 이룸, 특허법인 다울, (주)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주)라운과기술
계	62개 기관

구분	기술평가기관
공공 기관 (12)	국방기술품질원, 기술보증기금, 전자부품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붙임2】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절차



\*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요령」 제6조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승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b>브리핑 자료</b>	기술을 넘어 실용화로 <b>FACT</b> 농업기술실용화재단 www.efact.or.kr	제 공 일 : 2010.7.12. 자료제공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담 당 자 : 강경하 팀장 (031-8012-7210) 홍보담당 : 문지은 연구원(010-8777-8856)
	2010. 7. 13(화)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거래 필요성 및 기술거래기관 지정 의의)**

먼저 농식품분야 기술거래의 필요성과 기술거래기관지정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내 농식품산업은 '60대부터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에서 '00년대부터 성장이 정체되어 쇠퇴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통한 재도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현재 농식품분야의 기술시장은 1차·2차·3차 산업융합, 규모화·전문화, 생산·가공·유통·마케팅 패키지기술, 고품질(맛·기능성·안정성)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친환경, 고기능, 고효율, 저투입의 생산 및 생산시스템 전환을 위해 농식품 개발 우수 기술을 농산업체에 적시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 기존에 농가 대상의 기술지도·보급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 반면, 농산업체 대상의 전문적 기술거래는 초보단계이며, 특히 농식품 분야의 특성상 민간기반이 취약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흡수 역량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기술거래기관 지정 의의)**

- 이번 농식품분야 유일의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통해
- 민간의 열악한 기술혁신 기반을 극복하고,

- 농식품분야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조기에 전환하여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 농식품 산업과 관련된 각종 첨단기술의 확산과 산업화를 위해 유망기술의 발굴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전문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탄생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기술거래기관으로서의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의 역할)**

기술거래기관으로서의 재단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술자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 수요자-공급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식품 기술자원 종합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거래기반을 확보하고
  - 특허정보분석서비스, 농진청 및 농산업체의 지적권 획득을 지원하여 강한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거래활성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 우수기술설명회, Target Marketing, 사이버 농업기술장터 등 농식품 기술시장조성을 통해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등 기술거래 전문인력을 통한 기술거래로 수요자-공급자로부터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술거래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기술사양 조사분석, 정책정보, 금융알선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기술이전서비스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 기술이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 국내외 기술수요자, 공급자, 중개기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시회·박람회 참가, 농산업체에 찾아가는 실용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 농식품 기술거래 전문지인 'FACT 매거진'발간으로 수요자, 공급자, 협력기관의 정보공유를 통한 기술거래를 촉진하겠습니다.

(기술거래 역량)

- 실용화재단은 작년 9월 출범이후 기술거래전문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 기술거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 농진청으로부터 기술이해도가 높은 박사급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기술거래 전문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 기술공급자로부터 기술분야별로 박사급 전문인력이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 기술수요자에게는 기술의 장단점, 경쟁기술 등 기술수요자 니즈에 대응한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 변호사, 변리사 등을 통해 기술의 권리성, 계약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 농식품 기술거래 One-Stop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의 기술거래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 사이버 농업기술장터에 1071건의 판매기술, 구매기술 DB구축하였고,
  - 기술거래는 98건으로 기술료 1억73백만원이며,
  - 제주대, 테크란 등 12개 기관과 기술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대효과)

- 이번 농식품 분야 기술거래기관 지정으로
  - 지식기반 경제, 신기술 융합화, 에너지·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식·혁신 주도형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 좋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농산업체 육성으로 농식품 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 2012년까지 675건의 기술이전과 1,700명의 신규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기술거래 촉진을 통해
  - 비용절감,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하고**
  - 생명자원의 소재화 및 융복합기술로 **신시장 창출하며**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감기술 등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기술과 경영혁신"으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농식품 경영체 육성하고

- 13천명의 농식품 R&D 주체들의 역량을 실용화에 결집함으로써
-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농업혁명의 주도로 부의 창출**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술평가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분야 기술가치평가의 필요성입니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기술무역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31억\$ 적자로, 이 중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한 25억3000만달러,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56억7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기술도입 증가율은 소재산업이 전년 대비 61.2% 상승하여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업이 44.2% 증가하여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림수산업 분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하여, 수출기술 및 수입기술에 대한 적절한 기술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농업의 규모화, 고부가가치화가 가속화되면서 첨단농업·녹색성장산업·식품산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가 창출되고 있으나, 민간의 투자참여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민관 합작투자 (Joint Venture) 형태의 재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식품 관련 생산, 유통, 자재, R&D 등 다양한 분야에 민간자본을 제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농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식품 분야의 기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성·사업성에 기초한 사업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술투자평가 인프라 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이 농식품 산업의 성장전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시장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기업 542개를 대상으로 '벤처 재도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중 41.1%가 자금조달을 최대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2005년 재경부 기술금융 실태조사'에서는 기술평가(인증)를 받았지만 자금조달에는 실패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서의 실효성을 조사한 결과 '기술평가서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니기 때문'이 59.2%로 1위를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이 20.1%

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여 농식품 분야의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금융 인프라 체계의 구축과 시장의 신뢰 구축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농림수산물 분야 국가 R&D 성과 활용에 있어서 농어가 대상의 기술지도·보급체계는 구축되어 있는 반면, 산업체 대상의 전문적 기술거래 활성화 정책은 초보단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농식품산업 현장의 기술수요의 경우 국가 R&D 성과물을 공공재로 인식해 무상보급의 기대감이 많으므로, R&D 성과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기술수요자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가치평가 역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은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격증 소지자가 9명, 기술평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가 20명, 기술가치평가사 22명 등입니다.

또한 농업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도 각 분야 박사급 34명을 보유하고 있어 저희 재단은 농식품 분야 유일의 기술평가기관으로서 손색없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기술거래 등 실용화 성과를 창출하여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분야 공공연구기관, 농과계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R&D 기술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고, 농업인·농산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에 대해서도 ('11) 50건 → ('12) 200건 → ('13) 500건 등으로 그 평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뢰성 높은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투자 기반 조성으로 농식품 분야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농협,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술투자자들에게 투자대상 기업의 기술력평가, 사업타당성 평가 등을 제공하여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기술투자 활성화를 도

모하고, 농업법인·식품사업자 등 농림수산물 경영체는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아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술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로 농식품 분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개별기술 또는 기업의 기술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농협 등 금융기관 또는 농신보 등 신용기관에서 기술금융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개발→기술평가→기술금융→상용화 성공→재투자'로 이어지는 기술상용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R&D투자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넷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농업인, 농과계 대학 등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을 위하여 기업 등은 기술의 처분·유지 및 내부 지식재산 관리, 개발기술의 활용전략 수립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직면하며, 이 경우에 특허출원 평가·특허선별 평가·사업타당성 평가 등을 제공하여 기술관련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물분야 R&D 경제성 평가에서 기술평가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R&D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관리 패러다임을 현재의 '개발위주 기술혁신 시스템'으로부터 '성과확산 중심의 기술혁신'시스템으로 전환하여, R&D 투자가 경제성 평가에 기초한 사업화로 즉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R&D 전에 경제성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R&D 성과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배분 등과 연계시켜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R&D 전주기를 통해 R&D 단계나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기술평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기관 지정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측면에서 그 효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성과의 활용을 제고하고, 농업과학기술자원의 차등 관리를 통하여 R&D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식품 분야 평가기반 마련 측면입니다.

전문평가인력 양성으로 농업과학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평가 DB 축적 및 활용으로 기술평가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식품 기술거래 및 사업 활성화 측면입니다.

적정 기술가치 금액 산정을 통한 농업과학기술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과학기술 사업화 컨설팅으로 사업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농식품 기술 혁신형 기업 지원 측면입니다.

기술혁신형 농수산·식품 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지원하고,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농업과학기술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